

# 작년 11월 수출 454억 달러 2.5% ↑

2년5개월 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전환... 경상수지 89.9억 달러 흑자 57개월째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89억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월 이후 57개월째 '상상 최장' 흑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6년 11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9억9000만 달러로 전월(87억2000만 달러)보다 규모가 커졌다.

특히 수출이 2014년 6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45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정밀기기, 화공품 등은 증가한 반면 선박과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에 이어 태풍 차바까지 발생하는 등 3중 악재가 겹친 영향이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10월까지의 자동차 파업이나 태풍 같은 요인이 있었지만, 11월 들어 그런 요인들이 사라진 것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갤럭시노트7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이어져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유가의 상승에 따라 원유 도입 단가가 증가하면서 수입도 늘었다. 수입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7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유 도입 단가가 2015년 11월 비교해 4.0% 증가한 영향이 컸다. 원유 도입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 98억3000만 달러에서 105억2000만 달러로 7.0% 늘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전월 15억9000만 달러에서 17억4000만 달러로

커졌다.

운송수지가 전월 1억50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고, 여행수지의 적자폭도 확대(-5억 달러→7억5000만 달러)한 영향이 작용했다.

특히 운송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억6000만 달러 감소, 해운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계정은 89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26억2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1억달러 증가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월(12억6000만 달러)보다 14억4000만 달러 증가로 조사됐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66억1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42억8000만 달러 증가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감소 규모가 전월 32억5000만 달러에서 26억9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뉴시스

## LG, 'K시리즈' · 24시간 노트북 대거 발표

CES2017에서 보급형 K시리즈 · 스타일러스 3 · '톤 플러스 스튜디오' 4종 등

LG전자가 CES2017을 통해 스마트폰과 IT 기기 및 액세서리 등을 선보인다. 24시간 사용 가능한 노트북도 발표한다.

LG전자는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2017에서 차별화된 편의기능을 갖춘 보급형 스마트폰과 섬세한 필기감의 '스타일러스 3'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LG전자가 발표하는 2017년형 보급형 스마트폰인 'K시리즈'는 K10, K8, K4, K3 4종으로 구성된다. 고성능 카메라와 차별화된 편의기능들이 특징이다.

K10은 전면이 500만 화소의 120도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고 후면에는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

착했다. 지문인식 기능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K8은 5인치 HD 인셀 터치 디스플레이에 전면과 후면에 각각 500만 화소와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적용했다. K4는 5인치 디스플레이에 전·후면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K3는 4.5인치 디스플레이와 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스타일러스(Stylus) 3는 내장된 펜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다. 스타일러스 펜 끝부분은 1.8mm로 전작보다 약 40% 가늘어져 정교하고 섬세한 필기가 가능하다.

▲펜을 꺼내면 최근 작성한 메모를 최대 15개까지 보여주는 '펜 팝 2.0'

▲'바로 메모' ▲'펜 지킴이'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도 탑재됐다.

LG전자는 4개의 외장스피커를 탑재한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스튜디오' 4종도 함께 선보인다. 2개의 상단 스피커는 귀 주변에서 입체적인 사운드 존(Sound Zone)을 형성한다. 고성능 하이파이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을 탑재했다.

LG전자는 2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노트북 '올데이 그램'도 전시한다. 배터리 용량은 60와트시(Wh)로 기존의 약 1.7배다. 20분만 충전해도 최대 3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올트라HD(3840x2160) 해상도를 갖춘 32인치 HDR 모니터도 전시한다. 프리미엄 프로젝터 LG 프로빔 TV



K10

도 등장한다. 이 제품은 2000루멘의 밝기와 풀HD(1920x1080) 화질을 갖췄다. 이는 홀시터 전용 프로젝터와 맞먹는다는 설명이다.

예고한 바 있는 공중에 떠서 360도 방향으로 사운드를 내보내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볼 수 있다.

프리미엄 음질을 강조한 사운드 바 신제품도 내세울 만 하다.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영화관에 서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뉴시스

## 완성차업계, 새해맞이 톡톡 할인

설 명절 귀성여비 · 노트북 · 현금 지원 등 혜택 풍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설 명절 귀성여비, 노트북, 현금 지원 등 혜택이 풍성하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직계 준비금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대(1977년1월 이후 출생자)가 차량을 살 경우 20만~5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K5 하이브리드 · K7 하이브리드 · 니로 구매시 3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이달 중 스포티지 출시 ▲ 65만원 상당 스마트UP 패키지(후측방경보시스템+전자식파킹브레이크+휴대폰 무선충전시스템) ▲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 최저 1.5% 저금리 할부+15만원 가운데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쉐보레는 이달 중 쉐보레 콤포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파크 · 말리부 상품성 개선 모델 · 카마로를 사는 고객에게 최대 80만원의 현금할인 또는 맥북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스파크,

말리부, 올란도 구입시 30만원 추가 제공, 5년 이상된 차량 보유 고객이 쉐보레 차량 구입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18일까지 SM3 · SM6 · QM6 출시시 각각 50만원, 60만원, 30만원씩의 귀성여비를 지원한다.

특히 중형 SUV QM6는 혜택을 강화했다. 귀성여비 이외에도 패키지 할부 상품 '벨류박스'와 함께 하는 저리할부 이용시 출시 이래 최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인하된 4%(36개월), 5.5%(48개월), 6%(60개월)의 초저리로 QM6를 구매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뉴스타일 코란도 C 구매 고객에게 출시 기념으로 리어 스키드플레이트를 무상 장착해준다.

또 신임직 및 졸업생, 신규 입사자, 신규 창업자, 신혼부부 등이 RV 차종을 사면 10만원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티볼리 브랜드 구매시 선착순 1만 명에게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뉴시스

## 산은 "올해 경제성장률 2.6%" 전망

"민간소비 · 건설투자 둔화"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전년(10.5%)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5% 성장에 예측된다.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수출은 수출단가가 오르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7.1%)와 달리 2.8%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산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은 국내 수출 회복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투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의 점진적 회복 등의 요인에 힘입어 2.5% 성장할 전망이다.

산은 조사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에 의존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매출부진이 생산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민간소비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지난해(2.3%)보다 부

진한 2.1%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년(10.5%)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5% 성장에 예측된다.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수출은 수출단가가 오르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7.1%)와 달리 2.8%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산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은 국내 수출 회복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투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의 점진적 회복 등의 요인에 힘입어 2.5% 성장할 전망이다.

산은 조사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에 의존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매출부진이 생산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